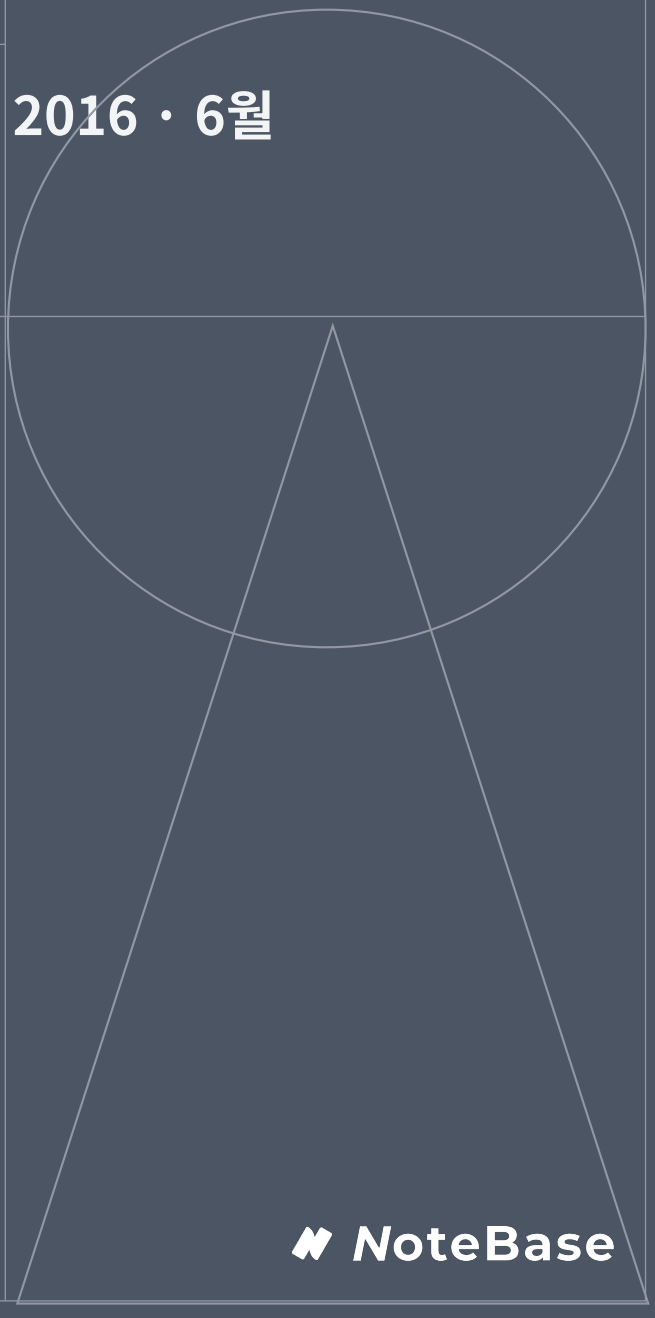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6 · 6월

문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① 끄나풀 - 새벽녘 - 삵괭이 - 떨어먹다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닯다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캉아지

④ 보조개 - 숫양 - 광우리 - 강남콩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글세**'는 어원에서 멀어진 채 굳어진 형태를 인정한 표준어이고, '**설거지**'도 '설겆이'로 적지 않는다.
'치켜세우다'와 접두사 뒤의 거센소리를 인정한 '수캉아지'도 표준어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끄나풀'과 '새벽녘'은 표준어이지만, '삵쾡이'와 '떨어먹다'는 비표준어이다. 동물을 가리키는 말은 **'살쾡이'**로 쓴다. '삵'도 표준어이지만 '삵쾡이'로 쓰지는 않는다.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앤다는 뜻의 말은 '떨어먹다'가 아니라 '털어먹다'이다.

② X: '세째'는 **'셋째'**로, '애닯다'는 '애달프다'로 고쳐야 한다. '셋째'는 차례가 세 번째라는 뜻과 수량이 세 개째라는 뜻에 모두 쓴다. '애닯다'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쓰이는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한편 '뜯게질'은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일을 뜻하는 표준어이며, 실로 옷 등을 떠서 만드는 '뜨개질'과 다른 말이다. '수평아리'도 접두사 '수-' 뒤의 거센소리를 인정한 표준어이다.

③ O: '치켜세우다', '사글세', '설거지', '수캉아지'는 모두 표준어이다. '치켜세우다'는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한다는 뜻 등으로 쓴다. '사글세'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가 굳어져 널리 쓰이므로 이를 인정한 말이며, '삭월세'로 고치지 않는다. '설거지'는 현재 쓰이지 않는 동사 '설겆다'의 어간을 밝혀 '설겆이'로 적지 않고, 명사 자체를 인정하여 적는다. '수캉아지'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 '수-'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여 'ㅋ'으로 적는 말이다.

④ X: '보조개'와 '숫양'은 표준어이지만, '광우리'와 '강남콩'은 비표준어이다. '광우리' 대신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광주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진 '강낭콩'으로 써야 한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원칙적으로 '수-'이지만, '숫양'은 '숫염소', '숫쥐'와 함께 예외적으로 '숫-'을 쓰는 말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 '포도'는 장사 밑천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 춤추듯 뛰어나가는 행동은 장사 밑천을 얻은 **기쁨과 기대**를 드러낸다. 이 행동에서 장사 실패를 예측할 근거는 없으며, 이후 실패의 원인은 장마로 제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에서 황수건은 '나'에게 장사 밑천 삼 원을 받고 춤추듯 뛰어나간다. 이는 **도움을 받은 기쁨과 장사를 시작할 기대**를 보여 주는 행동이다. 이 행동 자체가 참외 장사의 실패를 암시하지는 않는다. 장사가 실패한 것은 뒤의 ㉡에서 장마가 들어 밑천을 잃었다는 설명으로 밝혀진다.

② O: ㉡은 참외 장사의 실패와 아내의 가출이라는 두 사건을 짧게 압축해 전달한다.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을 대화와 행동으로 상세히 보여 주지 않고, 서술자인 '나'가 **전해 들은 결과를 요약**하여 황수건의 근황을 알려 준다.

③ O: '나'는 황수건에게 참외 장사 밑천을 대주었고, 황수건은 그 이튿날에도 '나'에게 참외를 가져다주었다. 이후 포도를 들고 와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라고 말하는 행동에서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포도가 훔친 것으로 밝혀져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려는 고마움의 표현이라는 의미는 유지된다.

④ O: ㉣에서 '나'는 포도를 황수건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에 빗대며 한 알도 오래 아껴 먹는다. 이는 포도에 담긴 **황수건의 순박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 준다. 앞서 황수건이 맞는 것을 말리고 포도값을 대신 내준 행동에서도 그를 감싸 주는 호의가 드러난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 + -아서 → 가서'에서는 연속한 두 'ㅏ' 중 하나가 없어지는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두 소리가 결합하여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축약은 두 소리가 합쳐져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이고, 탈락은 한 소리가 없어지는 현상이다.

① 자음 축약: '옳다'에서는 겹받침 'ㅀ'의 'ㅎ'과 뒤의 'ㄷ'이 합쳐져 'ㅌ'이 되므로 [올타]로 발음한다. '옳지'에서는 'ㅎ'과 'ㅈ'이 합쳐져 'ㅊ'이 되므로 [올치]로 발음한다. 두 경우 모두 'ㄹ'은 남고, **'ㅎ'과 뒤의 자음이 거센소리 하나로 합쳐진다**.

② 모음 축약: 어간 '주-'의 'ㅜ'와 어미 '-어라'의 'ㅓ'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ㅝ'**가 되므로 '주어라'가 '줘라'로 줄어든다. 두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이중 모음이 되는 경우이다.

③ 자음 축약: '막혀'에서는 'ㄱ'과 'ㅎ'이 합쳐져 'ㅋ'이 되므로 [마켜]로 발음한다. '맞힌'에서는 'ㅈ'과 'ㅎ'이 합쳐져 'ㅊ'이 되므로 [마친]으로 발음한다. 두 경우 모두 **앞의 자음과 'ㅎ'이 거센소리 하나로 합쳐진다**.

④ 모음 탈락: 어간 '가-'에 어미 '-아서'가 붙으면 같은 모음 'ㅏ'가 연속한다. 이때 **두 'ㅏ' 중 하나가 탈락**하여 '가서'가 된다. 다른 소리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음 하나가 없어지는 동일 모음 탈락이다.

①·③의 자음 축약, ②의 모음 축약과 달리 ④는 모음 탈락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띌 뿐 한적했다.

③ 둘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한둘'은 뒤의 명사를 꾸미지 않고 **하나나 둘쯤 되는 수 자체**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수량을 나타내더라도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와는 품사가 다르다.

선지별 해설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라도 문장에서 쓰이는 방식에 따라 품사가 다르다. 수 관형사는 뒤의 명사를 꾸며 그 수량을 나타내고, 수사는 수량 자체를 나타내는 체언으로서 조사가 붙을 수 있다.

① '한': 관형사. 책을 세는 단위인 '권' 앞에서 **'권'을 꾸며**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낸다. 이 문장에서 '한'은 수량 자체를 가리키는 체언으로 쓰이지 않았다.

② '한둘': 수사. **하나나 둘쯤 되는 수 자체**를 가리키며, 이 문장에서는 눈에 띄는 농부의 수량을 나타낸다. 뒤의 명사를 꾸미지 않으며, '한둘이'처럼 조사를 붙일 수 있다.

③ '두': 관형사. **뒤의 명사 '사람'을 꾸며**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낸다. 수량 자체를 가리키는 수사 '둘'과 구별된다.

④ '두세': 관형사. 석류를 세는 단위인 **'개'를 꾸며** 수량이 둘이나 셋쯤 됨을 나타낸다. 대략적인 수량을 뜻하더라도, 여기서는 명사를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①·③·④의 밑줄 친 말은 관형사이고, ②의 '한둘'은 수사라는 점에서 품사가 다르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③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비나리치다'는 **아첨을 하며 남의 환심을 사다**라는 뜻이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노느매기'는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누어진 몫을 뜻한다.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이라는 풀이는 이 뜻에 맞는다.

② X: '비나리치다'는 **아첨을 해 가며 환심을 사다**라는 뜻이다.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나타내므로, 비를 피하려고 허둥댄다는 풀이로 설명할 수 없다.

③ O: '가리사니'는 사물을 판단할 만한 지각이나 사물을 분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를 뜻한다. 곧 **판단하는 능력이나 판단의 단서**를 가리키므로 선지의 풀이와 일치한다.

④ O: '던적스럽다'는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더럽다'는 때가 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이 비열하고 추잡하다**는 의미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써클(circle)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badge는 '뱃지'가 아니라 **'배지'**로, encore는 '앵콜'이 아니라 **'앙코르'**로 적는다. '콘테스트'와 '난센스'도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옐로우'는 **'옐로'**로 고쳐야 한다. yellow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영어의 이중 모음 [ou]는 '오'로 적으므로 '우'를 덧붙이지 않는다. '벌브', '플래시', '워크숍'은 올바른 표기이다.

② X: '알콜'은 **'알코올'**로, '써클'은 **'서클'**로 고쳐야 한다. alcohol의 표기는 '알코올'이며, circle의 첫소리 [s]는 된소리 'ㅆ'이 아니라 'ㅅ'으로 적는다. '로봇'과 '보트'는 올바른 표기이다.

③ X: '도너츠'는 **'도넛'**으로 고쳐야 한다. doughnut의 끝소리 [t]는 이 단어에서 '츠'로 풀어 적지 않고 받침 'ㅅ'으로 적는다. '밸런스', '스위치', '리더십'은 올바른 표기이다.

④ O: badge, encore, contest, nonsense의 한글 표기는 각각 '배지', '앙코르', '콘테스트', '난센스'이다. badge의 끝소리는 **받침 없이 '지'**로 적으므로 '뱃지'로 쓰지 않는다.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encore도 흔히 쓰는 '앵콜'이 아니라 '앙코르'로 적는다. 네 단어 모두 고칠 부분이 없다.

NoteBase

문 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해명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보도	(1)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2)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해명 자료	(1)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 (2)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2)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③ 해명 자료(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④ 해명 자료(2)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해명 자료 (2)의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은 **그런 사례가 드물다**는 뜻이다. 단독세대원의 공공아이핀 발급 불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신문 보도 (1)은 재외국민이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요지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2)는 공인인증서·주민등록증·거주여권 등 발급에 쓰이는 수단과 방문(PM)여권 소지자 및 단독세대원의 발급 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같은 문제를 **개괄적 요약과 상세한 설명**으로 나누어 전달한 것이다.

② O: 신문 보도 (2)에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소지만으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③ O: 해명 자료 (1)의 밑줄 친 부분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을 '나'로 연결한다. 앞말은 날짜 정보이고 뒷말은 신청 행위여서 **접속된 대상의 의미상 층위가 다르다**.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이용한 신청이나 대리인(가족관계)을 통한 신청으로'처럼 두 대상을 모두 신청 방식으로 맞추면 자연스럽다.

④ X: 해명 자료 (2)는 유학생·주재원 등이 해외로 이주할 때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므로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이는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설명**일 뿐, 단독세대원도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음'은 '단독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① 디귿이[디그시], 홑이불[혼니불]

② 뚫는[뚤는], 밝히다[발키다]

③ 핥다[할따], 넓죽하다[넙쭉카다]

④ 흙만[흑만], 동원령[동□원녕]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디귿이'는 한글 자모 이름의 특별한 발음 규정에 따라 **[디그시]**로 발음한다. '홑이불'은 'ㄴ' 첨가와 비음화를 거쳐 **[혼니불]**로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디귿이'는 [디그시], '홑이불'은 [혼니불]로 발음한다. '디귿이'는 받침 'ㄷ'을 그대로 연음한 [디그디]로 읽지 않고, **자모 이름에 적용되는 특별한 발음**에 따라 [디그시]로 읽는다. '홑이불'은 '홑-'과 '이불'이 결합한 말로, 자음 뒤에 '이'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져 'ㄴ'이 첨가된다. 여기에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혼니불]이 된다.

② X: '뚫는'은 [뚤는]이 아니라 **[뚤른]**으로 발음한다. 겹받침 'ㄶ'의 'ㅎ'이 탈락하고, 뒤의 'ㄴ'이 앞의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밝히다'의 [발키다]는 옳다. 겹받침 'ㄺ'의 'ㄱ'과 뒤의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이 되고 'ㄹ'은 남는다.

③ X: '핥다'의 [할따]는 옳지만, '넓죽하다'는 [넙쭉카다]가 아니라 **[넙쭈카다]**로 발음한다. '핥다'에서는 어간 받침 'ㄾ' 뒤에 오는 어미의 'ㄷ'이 된소리 [ㄸ]로 바뀌며, 겹받침 'ㄾ'에서는 'ㄹ'만 발음된다. '넓죽하다'의 'ㅄ'은 예외적으로 [ㅂ]으로 발음하고, 뒤의 'ㅈ'은 된소리 [ㅉ]가 된다. 또한 '죽'의 받침 'ㄱ'과 '하다'의 'ㅎ'이 [ㅋ]으로 합쳐지므로, '쭉'의 받침 'ㄱ'을 따로 남기지 않는다.

④ X: '흙만'은 [흑만]이 아니라 **[흥만]**으로 발음한다. 겹받침 'ㄺ'이 자음 앞에서 [ㄱ]으로 단순화되고, 그 [ㄱ]이 뒤의 'ㅁ'에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뀐다. '동원령'의 [동□원녕]은 옳다. 이 말은 'ㄴ'과 'ㄹ'이 만나 'ㄹ'로 바뀌는 일반적인 유음화의 예외로, '원'의 받침 'ㄴ' 뒤에서 '령'의 'ㄹ'이 [ㄴ]으로 바뀐다. 첫음절 '동'은 길게 발음한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단어의 짜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보기>

놀리- + -ㅁ

↓ (파생)

손 + 놀림

↓ (합성)

손놀림

① 책꽂이

② 헛소리

③ 가리개

④ 흔들림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책꽂이'는 '꽂-'에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꽂이'가 다시 '책'과 결합한 말이다. 보기의 '손놀림'처럼 **파생어가 만들어진 뒤 다른 어근과 결합한 합성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단어의 짜임은 마지막에 직접 결합한 두 요소를 기준으로 살핀다. 어근끼리 결합하면 합성어이고, 어근에 접사가 붙어 새 단어가 만들어지면 파생어이다. 합성어의 구성 요소 안에 접사가 들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접사의 유무만으로 전체 단어를 분류하지 않는다.

보기의 '손놀림': '놀리-'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붙어 '놀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명사 '손'이 결합한다. 즉 '손 + [놀리- + -ㅁ]'의 구조로, **파생 후 합성**이 이루어진 말이다.

① 책꽂이: '꽂다'의 어간 '꽂-'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 '꽂이'가 만들어진 뒤, 명사 '책'과 결합한다. '책 + [꽂- + -이]'의 구조이며, 마지막 결합은 **'책'과 '꽂이'의 합성**이다.

② 헛소리: 명사 '소리' 앞에 접두사 '헛-'이 붙은 '헛- + 소리'의 구조이다. 마지막 결합은 **접두사에 의한 파생**이므로, 파생어가 다시 다른 어근과 합성되는 보기와 다르다.

③ 가리개: '가리다'의 어간 '가리-'에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개'가 붙은 '가리- + -개'의 구조이다.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며, 이후 다른 어근과 합성되는 단계가 없다.

④ 흔들림: '흔들리다'의 어간 '흔들리-'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붙은 '흔들리- + -ㅁ'의 구조이다. 마지막 결합이 **명사를 만드는 파생**이므로, 끝에 합성이 이루어지는 보기와 다르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파생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파생어가 다른 어근과 합성되는 짜임은 ① '책꽂이'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①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중요(仲要)하다.

② 대중(對衆)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③ 부동산 중개사(重介士)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④ 집중력(集中力)이 떨어지지 않도록 숙면을 취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집중력'은 한 가지 일에 주의와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으로, **集中力**으로 쓴다. 集은 '모을 집', 中은 '가운데 중', 力은 '힘 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중요하다'의 한자는 **重要**이다. 重은 '무거울 중', 要는 '요긴할 요'로, 귀중하고 요긴하다는 뜻이다. 선지의 仲(버금 중)을 重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대중'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뜻하며 **大衆**으로 쓴다. 大는 '큰 대', 衆은 '무리 중'이다. 선지의 對(대할 대)를 大로 고쳐야 한다.

③ X: '중개사'의 한자는 **仲介士**이다. '중개'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것을 뜻한다. 선지의 重(무거울 중)을 仲(버금 중)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집중력'은 **集中力**으로 쓴다. 集은 '모을 집', 中은 '가운데 중', 力은 '힘 력'이다. 한 가지 일에 주의와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므로 문장의 의미와 한자 표기가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보기>와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같은 것은?

<보기>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너그러운 것이로다.

① 김주영의 「객주」
② 이범선의 「오발탄」
③ 박경리의 「토지」
④ 황석영의 「장길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보기와 「오발탄」은 모두 **한국전쟁과 그 상처가 남은 현실**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보기는 전사한 적군을 애도하고, 「오발탄」은 전후 피란민 가족의 궁핍과 좌절을 그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구상의 「초토의 시 8－적군 묘지 앞에서」의 일부이다. 어제까지 총을 겨누었던 적군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는 장면은 한국전쟁이 낳은 비극을 보여 준다. 화자는 적군의 죽음 앞에서 적대감을 넘어선 연민을 드러낸다. 각 소설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를 이 한국전쟁의 현실과 대조해야 한다.

① 김주영의 「객주」: **19세기 말 개항기**, 임오군란 전후의 조선을 배경으로 보부상들의 삶과 활동을 그린다. 한국전쟁보다 앞선 시기이므로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

② 이범선의 「오발탄」: **한국전쟁 이후의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월남한 철호 가족이 겪는 가난과 좌절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전후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다. 전투 장면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보기처럼 한국전쟁이 초래한 비극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③ 박경리의 「토지」: **189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최씨 일가와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사회 변화를 그린다. 작품의 시간적 범위가 한국전쟁 이전에 끝나므로 보기와 다르다.

④ 황석영의 「장길산」: **조선 후기 숙종 때**를 중심 배경으로 한다. 장길산을 비롯한 민중이 지배층의 수탈과 사회적 모순에 맞서는 모습을 그린 역사소설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보기와 시대가 다르다.

이 가운데 보기와 한국전쟁 전후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는 작품은 「오발탄」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동문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마당이 넓다.
	↓	↓
사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용사의 사동화를 빠뜨렸다. <보기>의 '넓다 → 넓히다'처럼 **형용사도 사동화**되어 어떤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문장이다.

① O: ㉡의 '먹게 하였다'는 용언에 **'-게 하다'를 결합**하여 사동을 나타내고, ㉣의 '넓혔다'는 '넓다'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을 나타낸다. 두 문장은 각각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과 접미사에 의한 사동문의 예이다.

② O: ㉠의 주어 '아이가'는 ㉡에서 '아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나타나고, ㉢의 주어 '마당이'는 ㉣에서 '마당을'이라는 목적어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나 목적어** 등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③ X: ㉠의 '먹다'는 동사이지만, ㉢의 '넓다'는 마당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이 형용사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은 '넓히다'는 마당이 넓은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사만'이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 모두 사동화될 수 있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다. ㉠의 '먹다'는 주어 '아이가'와 목적어 '밥을'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에서는 사동의 주체인 '어머니가'가 더해져 '어머니가·아이에게·밥을'의 세 성분을 요구한다. 또한 ㉢의 '넓다'는 주어 '마당이'를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지만, ㉣의 '넓히다'는 주어 '인부들이'와 목적어 '마당을'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처럼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날 수 있다**.

NoteBase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④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는 **한자어**이다. '하늘', '바람'은 고유어이지만, 함께 제시된 단어가 모두 고유어인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고유어는 외래 요소에서 온 말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던 말이다. '하늘', '바람'은 고유어이지만,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는 한자어**이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라고 한 설명을 고쳐야 한다.

② O: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학교(學校)', '공장(工場)', '도로(道路)', '자전거(自轉車)', '자동차(自動車)'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평소 한글로 적더라도 어종은 한자어이다.

③ O: 귀화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오랫동안 쓰여 **외래어라는 느낌이 거의 없을 만큼 우리말에 정착한 말**이다.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가 그 예이다. 친숙하게 쓰인다는 사실과 말의 기원이 고유어라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④ O: 비어는 **대상을 낮추어 부르는 점잖지 못한 말**이다. 사람에게 쓸 때 '눈깔'은 눈을, '아가리'와 '주둥아리'는 입을, '모가지'는 목을, '대가리'는 머리를 낮추어 이른다. 따라서 제시된 단어들은 비어에 속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철수 밥 먹는다.
㉡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오늘 내가 본'은 '내가'와 '본'의 **주어·서술어 관계를 갖춘 관형절**이다. 뒤의 명사 '영화'를 꾸미므로 문장 안에서 관형어 기능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철수'와 '밥'은 각각 한 단어이자 한 어절이지만, 문장 성분은 각각 **주어와 목적어**이다. '철수'는 먹는 주체이고, '밥'은 먹는 대상이다. 이 문장에서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으며, 조사를 넣으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가 된다. 따라서 '밥'을 부사어라고 한 부분을 목적어로 고쳐야 한다.

② X: '그 사람이'는 주어이고 '그런 심한 말을'은 목적어이지만, 둘 다 **절이 아니라 구로 실현**되어 있다. '그 사람이'는 '그'가 '사람'을, '그런 심한 말을'은 '그런'과 '심한'이 '말'을 꾸미는 구성이다. 각 밑줄 부분 내부에는 주어·서술어 관계가 없으며, 여러 단어가 모여 각각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다.

③ O: '오늘 내가 본'에는 주어 '내가'와 서술어 '본'의 관계가 있으므로 절에 해당한다. '본'은 동사 '보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며, 이 절 전체가 뒤의 명사 '영화'를 꾸민다. 따라서 **관형절로 실현된 관형어**이다.

④ X: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밝혀졌다'의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이다.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은 주어·서술어 관계를 갖춘 구성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명사절이고, 여기에 주격 조사 '이'가 붙었다. 무엇이 밝혀졌는지를 나타내므로 명사절로 실현된 주어로 보아야 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① 登高自卑
② 角者無齒
③ 騎虎之勢
④ 脣亡齒寒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은 **기호지세(騎虎之勢)**의 뜻과 통한다. 호랑이를 타고 가다가 내리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시작한 일을 도중에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을 비유한다.

공통 해설

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가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한다.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위험하므로 계속 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지문에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중동 진출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을 끝까지 이어 가야 한다는 상황이 기호지세의 의미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 「삼대」,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인문평론』, 『문장』 등 유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무정」의 연재는 **1917년**으로, 『창조』 등 동인지가 등장한 1919년 이후보다 앞선다.
『문장』·『인문평론』의 폐간은 **1941년**의 일이므로 1930년대 장편소설 발표보다 뒤에 놓인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 → ㉡ → ㉢ → ㉠ → ㉣

ⓓ 신소설의 등장: 이인직의 「혈의 누」는 1906년, 이해조의 「자유종」은 1910년에 발표되었다. 개화기의 신소설에 해당하므로 **1917년 「무정」의 연재보다 앞선다**.

㉡ 「무정」의 연재: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신소설이 등장한 뒤이면서, 1919년부터 나타나는 문학 동인지들보다는 앞선 시기이다.

㉢ 동인지와 민간 신문의 등장: 『창조』는 1919년, 『폐허』는 1920년, 『백조』는 1922년에 창간되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모두 1920년에 창간되었다. 따라서 **1919년부터 1920년대 초**의 문학·언론 활동을 가리키며, 1930년대 장편소설 발표에 앞선다.

㉠ 다양한 장편소설의 발표: 염상섭의 「삼대」는 1931년, 이광수의 「흙」은 1932~1933년,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1938년에 연재되었다. 이 작품들은 **1930년대**에 해당하므로 동인지·민간 신문의 등장보다 뒤이고, 1940년 전후의 신문·문학지 폐간보다 앞선다.

㉣ 문학지와 한글 신문의 발행 위축: 일제의 전시 통제와 우리말 탄압이 강화되면서 『조선일보』·『동아일보』는 1940년에 강제 폐간되었고, 『문장』·『인문평론』은 1941년에 폐간되었다. 이 보기는 잡지가 창간된 때가 아니라 **발행이 어려워진 일제강점기 말기**를 가리키므로 가장 뒤에 놓인다.

NoteBase

문 17. <보기>는 '비치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에】 ❶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❷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❸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❹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❺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2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3 【…에/에게 …을】
❶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❷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넌지시 깨우쳐 주다.

① 【1】❶: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② 【1】❸: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③ 【2】: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④ 【3】❶: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산이 호수에 비쳤다'는 산 자체가 아니라 **산의 영상이 수면에 나타나 보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라는 【1】❸의 뜻풀이에 맞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종이로 가린 창문을 통해 안이 보인다는 뜻이다. 빛이 나서 환해지는 【1】❶이 아니라,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는** 【1】❺에 해당한다.

② O: 호수에 산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뜻이다.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는** 【1】❸에 해당한다. '호수에'는 영상이 나타나는 곳을 가리킨다.

③ X: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슬쩍 꺼내어 반응을 살핀다는 뜻이다.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는 【2】가 아니라,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는** 【3】❷에 해당한다. '동생에게'는 말을 건네는 상대이고, '결혼 문제를'은 꺼낸 말의 내용이다.

④ X: 글씨를 흘려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뜻이다. 얼굴이나 눈치를 잠시 나타내는 【3】❶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는** 【2】에 해당한다. '성의 없는 사람으로'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② 'ㄱ, ㄴ, ㅁ,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ㄷ, ㅌ, ㄹ, ㅂ, ㅈ, ㅊ,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ㅸ'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ㅸ'은 입술소리 글자 'ㅂ' 아래에 'ㅇ'을 이어 쓴 글자이다. 이처럼 순음자 아래에 'ㅇ'을 이어 써 **순경음을 나타내는 방식**을 **연서**라고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ㄴ'이다. 초성의 기본자를 발음 기관의 모양에 따라 만들었다는 설명은 맞지만, 'ㄱ'과 'ㄴ'의 상형 대상을 바꾸었다.

② X: 가획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가획자는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의 **9자**이다. 구체적으로 'ㄱ → ㅋ', 'ㄴ → ㄷ → ㅌ', 'ㅁ → ㅂ → ㅍ', 'ㅅ → ㅈ → ㅊ', 'ㅇ → ㆆ → ㅎ'의 관계로 만들어졌다. 선지에 포함된 'ㄹ'은 가획자가 아니라 이체자이며, 선지에는 가획자인 'ㅍ, ㆆ'이 빠져 있다.

③ X: 창제 당시 훈민정음은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합한 28자이다. 종성은 별도의 글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쓰는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를 따른다. 종성에 8자만 써도 충분하다는 규정은 종성용 문자를 따로 8자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④ O: 연서는 순경음을 나타내기 위해 **순음자 아래에 'ㅇ'을 이어 쓰는 방식**이다. 제시된 'ㅸ'은 위쪽의 'ㅂ'과 아래쪽의 'ㅇ'이 결합한 글자로, 순경음 비읍이라고 한다. 따라서 'ㅇ'을 이용한 연서의 예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대화를∨하면∨할수록∨타협점은∨커녕∨점점∨갈등만∨커지게∨되었다.

② 창문∨밖에∨소리가∨나서∨봤더니∨바람∨소리∨밖에∨들리지∨않았다.

③ 그∨만큼∨샀으면∨충분하니∨가져갈∨수∨있을만큼만∨상자에∨담으렴.

④ 나는∨나대로∨갈∨데가∨있으니∨너는∨네가∨가고∨싶은∨데로∨가거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나대로'의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인다. 반면 '갈 데'와 '가고 싶은 데로'의 **'데'는 장소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고, 뒤에 붙는 조사 '로'는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타협점은 커녕'은 **'타협점은커녕'**으로 고친다. '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며, 앞에 다른 조사가 있어도 띄지 않는다.

② X: '바람 소리 밖에'는 **'바람 소리밖에'**로 고친다. 여기서 '밖에'는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내고 뒤에 부정 표현 '않았다'가 이어지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인다. 반면 '창문 밖에'의 '밖'은 일정한 공간의 외부를 뜻하는 명사이므로 '창문'과 띄고, 조사 '에'를 붙여 쓴다.

③ X: '그 만큼'은 **'그만큼'**으로, '있을만큼만'은 **'있을 만큼만'**으로 고친다. '그만큼'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의 '만큼'은 앞의 관형어 '있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고, 조사 '만'은 '만큼'에 붙인다.

④ O: '나대로'의 '대로'는 체언 뒤에 붙어 그 나름의 방식이나 처지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나'에 붙인다. '갈 데'와 '가고 싶은 데로'의 '데'는 '곳'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어 '갈', '가고 싶은'과 띄어 쓴다. '데로'의 '로'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데'에 붙인다.

NoteBase

문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① 溫古知新

② 麥秀之嘆

③ 識者憂患

④ 左考右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맥수지탄(麥秀之嘆)'의 '수'는 **秀(빼어날 수)**이다. 망한 나라의 옛 궁궐 터에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탄식한 데서 유래하여, 고국의 멸망을 한탄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온고지신'은 **溫故知新**으로 쓴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밑줄 친 古(옛 고)는 故(옛 고)로 고쳐야 한다. 두 글자의 음과 뜻이 비슷해도 이 성어에는 故를 쓴다.

② O: '맥수지탄(麥秀之嘆)'의 **秀(빼어날 수)**는 보리 이삭이 자라 무성한 모습을 나타낸다. 망한 나라의 옛 궁궐 터에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탄식한 데서 유래하며, 고국의 멸망을 한탄한다는 뜻이다.

③ X: '식자우환'은 **識字憂患**으로 쓴다. 글자를 아는 것, 곧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된다는 뜻이다. 밑줄 친 者(사람 자)는 글자를 뜻하는 字(글자 자)로 고쳐야 한다.

④ X: '좌고우면'은 **左顧右眄**으로 쓴다.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른다. 밑줄 친 考(생각할 고)는 돌아본다는 뜻의 顧(돌아볼 고)로 고쳐야 한다.

NoteBase